

디지털 토[通]



01/ NIA 뉴스

- 병무청 사회복지무연수센터와 업무협약
- NIA와 함께하는 즐거운 인문학 특강 '클래식, 아는 만큼 들린다'
- "세계 최초로 국가정보화수준진단도구 개발했다"
- 2016년 매여마을 일손돕기 봉사 활동 진행
- 학교 최고책임자 인터넷윤리 연수 실시
- 초등학생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예술체험 공연교육 실시
- 정부3.0 공공데이터 + 생활UP 아이디어 = 창업
- 정부3.0 성과진단 및 지속발전방안 모색 위한 컨퍼런스 개최

02/ ICT 보고서

- [NEAR & Future 2016년 Vol.15] 현상에서 미래를 보다
-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 전자정부 해외 동향분석 서비스 : D.gov Edge (2016-6월호)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홍보 브로셔(국문)
- [D.gov 기획보고서] 온디맨드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추진전략(제2016-01호)
- 정보화정책저널

03/ ICT 인사이트

-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 전자정부 6대 수출품목 및 비전 소개
- 사례로 본 공공데이터
- 정보화 트렌드 보고서 정보화통계집

04/ 포토앨범

- 2016년 매여마을 일손돕기 봉사활동

05/ 7월 NIA 행사

06/ 디지털통 다시보기

NIA News

병무청 사회복지무연수센터와 업무협약

우리원과 사회복지무연수센터(원장 이계용)는 7월 8일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및 사회복지무요원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식 자리에는 권미수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본부장과 이계용 사회복지무연수센터 원장이 참석하여 사회복지무요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 교육 콘텐츠 생산 및 활용 협력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회복지무연수센터와 적극 협업하는 등 정부3.0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무요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및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무요원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스마트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IA News

NIA와 함께하는 즐거운 인문학 특강 '클래식, 아는 만큼 들린다'

우리원은 대구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임직원 및 대구지역주민과의 교류 확산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 국립세종도서관 후원으로 7월 5일 대구본원 1층 대강당에서 서희태 지휘자의 음악이 있는 인문학 특강 '클래식, 아는 만큼 들린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서희태 지휘자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강마에'의 실제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90분간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서희태 지휘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음악가 3인방의 삶을 그들의 주요음악과 함께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이번 인문학 특강이 잠시나마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여유를 제공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A News

“세계 최초로 국가정보화수준진단도구 개발했다”

우리원과 미래창조과학부는 개발도상국 국가정보화 수준을 진단해 정보화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맞춤형 ‘국가정보화수준진단도구(NIAT)’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보급을 시작한다고 6월 29일 밝혔습니다.

National Informatization Assessment Tool의 약자를 따서 NIAT라 이름붙인 국가정보화수준진단도구는 국가정보화 정책에 간여하는 ICT 컨설턴트를 위한 오픈 소스(open source) 도구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부터 개발 작업을 시작해 약 5년여의 개발 기간이 걸린 NIAT는 컨설턴트들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애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으로 제작되었으며, 오프라인 파일(off-line file)로 보급해 랩탑 등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NIAT 출시 기념식을 개최해 국내 ICT 컨설팅 기업관계자들에게 도구의 출시 사실과 활용법을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ICT 컨설턴트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의 나탈리아 질레비치 대사가 참석해 NIAT를 활용한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NIAT 출시 기념식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ICT 기반의 지구촌 주민 삶의 질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ICT 컨설팅 기업들의 비교우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NIAT 출시를 계기로 유엔 지속성장개발목표의 아젠다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IA News

2016년 매여마을 일손돕기 봉사 활동 진행

우리원은 대구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및 자매결연마을 일손 돕기 지원을 위해 6월 28일(화) 대구 동구 매여마을에서 일손 돕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 필요한 쿨 토시와 스카프 150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수확 및 재배를 위해 많은 일손이 필요한 6월 하순 시기에 진행 된 이번 봉사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직원 40여명이 참석하여 미나리 캐기, 콩 수확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서툰 손길이지만 바쁜 농촌의 일손을 돕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통해 대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대구 매여마을 주민들도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직원들이 매여마을에 찾아와 농사를 도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체 봉사 조직 NIA엔젤스와 대구 동구 매여마을은 지난 2007년, 신서 혁신도시 이전 예정기관의 자격으로 자매 결연을 맺었고, 이후 고추 따기, 사과나무 가꾸기 등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NIA News



학교 최고책임자 인터넷윤리 연수 실시

우리원은 학교 현장의 리더를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연수를 실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연수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 학교 책임자의 인터넷윤리 정책개발 및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연수는 전국의 교장(감)과 장학관(사) 300명 이상이 참여하며, 6월 23일부터 10월까지 9회에 걸쳐 제주도에 위치한 NIA 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인터넷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지도방법과 학교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치유 등 인터넷윤리 향상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제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연수대상자인

교육 리더의 특성과 직무를 고려해 인터넷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 및 체험중심의 연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 리더는 청소년의 인터넷문화를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제 업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터넷윤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을 지원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NIA News

초등학생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예술체험 공연교육 실시

우리원은 6월 22일 서울 양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전국 초등학교 30개교를 순회하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 공연교육을 실시합니다.

공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상에서의 타인비방, 명예훼손,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을 소재로 기획·제작되었고,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대상 공연 [수상한 아빠]와 고학년 대상(4~6학년) 공연 [Let's go! 소년 탐정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음악과 춤, 코믹적 요소를 가미한 뮤지컬형 연극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구성함하여 거부감 없이 사이버폭력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사이버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기존의 딱딱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체험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한 사이버 윤리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NIA News

정부3.0 공공데이터 + 생활UP 아이디어 = 창업

우리원과 행정자치부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6.19~22일, 서울 코엑스)의 부대행사로 '공공데이터 활용 생활UP 아이디어 해커톤' 본선과 '제5회 공공데이터 창업 TALK'을 21일(화) 코엑스 C홀 컨퍼런스룸1에서 개최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생활UP 아이디어 해커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생활 품질 향상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해커톤에 참가한 아이디어들은 과거 관광·기상정보·교통물류 분야 서비스 개발에 집중되었던 틀을 벗어나, 드론·블루투스 등 신기술과 공공데이터의 융합서비스부터 장애인 관광 플랫폼·노인 복지·상습 임금 체불 업체 선별 등의 사회 문제 해결까지 진화한 공공데이터 활용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2016 공공 빅데이터 사업'발굴을 위해 지난 4월에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공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장관상에 '빅데이터를 통한 국토정비 및 예방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에 '주요 질병 조기 진단 및 예방 플랫폼 구축'이 수상했습니다.

『제5회 공공데이터 창업토크』는 '생활UP 아이디어+공공데이터=창업'을 주제로 해커톤 참여자 및 (예비)창업인, 관람객 등 청중 10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업토크의 패널로 참석한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다가올 미래 지능정보사회는 데이터가 핵심이며, 공신력 있는 공공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말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 내의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NIA News

정부3.0 성과진단 및 지속발전방안 모색 위한 컨퍼런스 개최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가 주최하고 우리원이 주관하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컨퍼런스’가 6월 20일 코엑스(3층 307호)에서 ‘2016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컨퍼런스는 정부3.0 4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부3.0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성과 확산과 정부3.0의 생활화를 위한 지속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 정부3.0 추진위원 및 학계, 공공,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컨퍼런스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중앙 부처·지자체에서 대표적인 국민체감형 정부3.0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례발표 세션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근로 소득자에게 미리 제공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가능하게 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정부3.0 우수사례 6개를 소개하였습니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 추진한 정부3.0의 노력과 성과를 진단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정부3.0 방향을 소개하면서, “기술융합을 통해 스마트 사회가 도래하였고, 국민들도 스마트해졌으므로 민·관의 창의적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개방형 혁신의 장(場)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부로 나아가자”고 제시하였습니다.



ICT 보고서



한국 정보화진흥원

[NEAR & Future 2016년 Vol.15]
현상에서 미래를 보다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전자정부 해외 동향분석 서비스
: D.gov Edge (2016-6월호)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홍보 브로셔(국문)



[D.gov 기획보고서]
온디맨드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추진전략(제2016-01호)



정보화정책저널



ICT 보고서 **정보화 정책 저널**



1. 지능사회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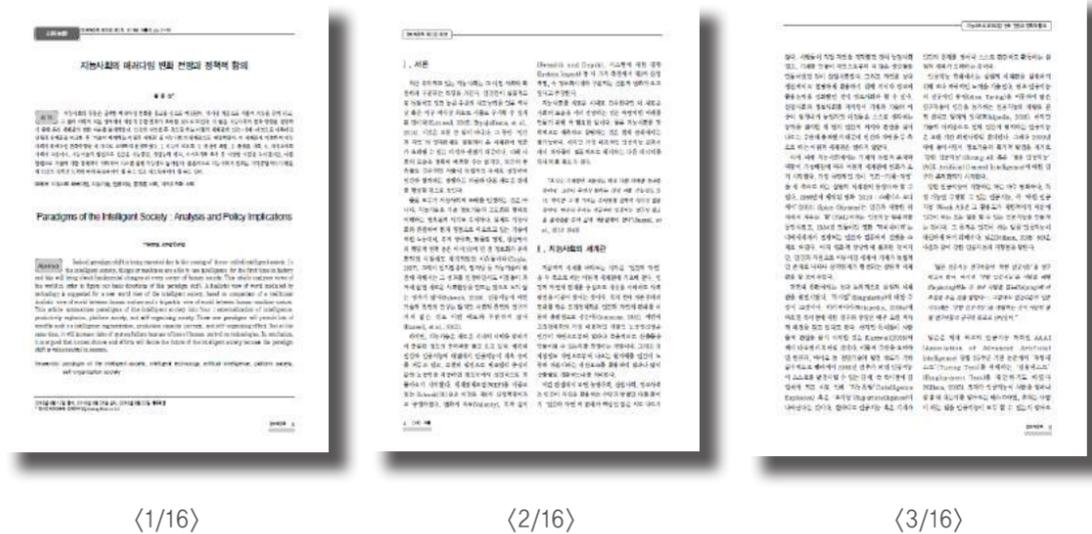
[요약]

지능사회의 등장은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물이 지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지능사회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우선 세계관의 변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인간과 자연을 두 축으로 하는 이원적 세계관과 인간-기계-자연으로 이루어진 삼원적 세계관을 비교한 후 '기술이 매개하는 이원적 세계관'을 지능사회의 세계관으로 제안하였다. 이 세계관에 기초하여 지능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방향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전망하였다. 1. 지능의 외부화, 2. 생산성 폭발, 3. 플랫폼 사회, 4. 자기조직화 사회가 그것이다. 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지능증강, 생산능력 제고, 자기조직화 효과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술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시스템 실패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지능사회의 변화는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주/제/어

지능사회 패러다임, 지능기술, 인공지능, 플랫폼 사회, 자기조직화 사회

<미리보기>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112021054165684&id=17422&Order=020702&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1&objpage=0



ICT 보고서



정보와 정책 저널

2. 한국, 중국, 미국의 모바일 정보역량과 삶의 질에 관한 비교연구

[요약]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류는 다양한 모바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정보에 접근하고 다루는 모바일 정보역량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 3국의 소비자 1,29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정보역량과 삶의 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정보역량 중에서 정보접근역량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정보활용역량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가장 낮게 나왔다. 모바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서도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접근성이 좋아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많지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바일 정보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수들을 중 소비자 혁신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에서는 모바일정보 활용능력을 함양시키고 혁신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모바일정보, 삶의 질, 정보접근성, 정보활용도, 혁신성, SNS, 스마트폰, 모바일인터넷, 한국, 미국, 중국



<미리보기>



<1/16>

<2/16>

<3/16>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112021054165684&id=17423&Order=020702&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1&objpage=0



ICT 보고서



정보와 정책 저널

3.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의 분석틀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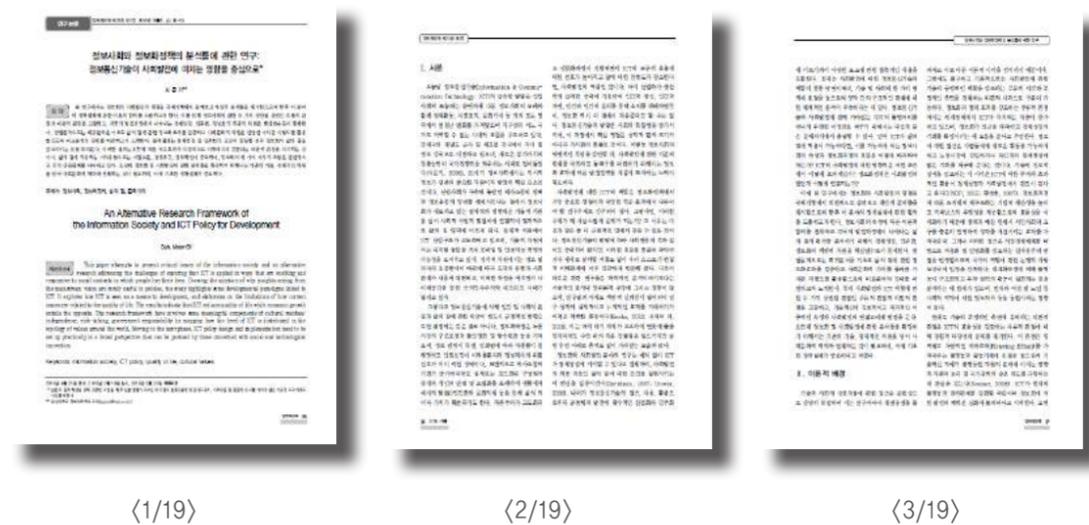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와 사회발전의 쟁점을 국제지형에서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정책설계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사회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주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고찰하고,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을 핵심변수로서 통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회귀분석을 기초로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효과를 검증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을 반영한 가치관 지형도를 활용함으로써 비교분석의 잣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분석결과는 경제성장 및 민주화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보화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ICT에 따른 낙수효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삶의 질에 작용하는 가치유형으로는 자립수준, 경쟁추구, 정부책임이 중요하며, 정보화와 세 가지 가치의 조합은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정보화 및 사회발전에 관한 분석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

주/제/어

정보사회, 정보화정책, 삶의 질, 문화가치

<미리보기>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112021054165684&id=17424&Order=020702&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1&objpage=0



ICT 보고서



정보와 정책 저널

4.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발전 :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클라우드 소싱 등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의 정책 관여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클라우드 소싱이나 온라인 청원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 자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개입 정 당성(Throughput Legitimacy)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시민의 동의와 협의 과정은 정책의 투명성, 효과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의 질과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입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 연구로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혁신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다양하게 시도되었 던 디지털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의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개입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사회혁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디지털 사회혁신, 청원, 개입 정당성, 민주주의, 클라우드 소싱



<미리보기>



<1/19>

<2/19>

<3/19>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112021054165684&id=17425&Order=020702&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1&objpage=0



ICT 보고서



정보와 정책 저널

5. ANP를 활용한 후기정보사회의 수준진단과 측정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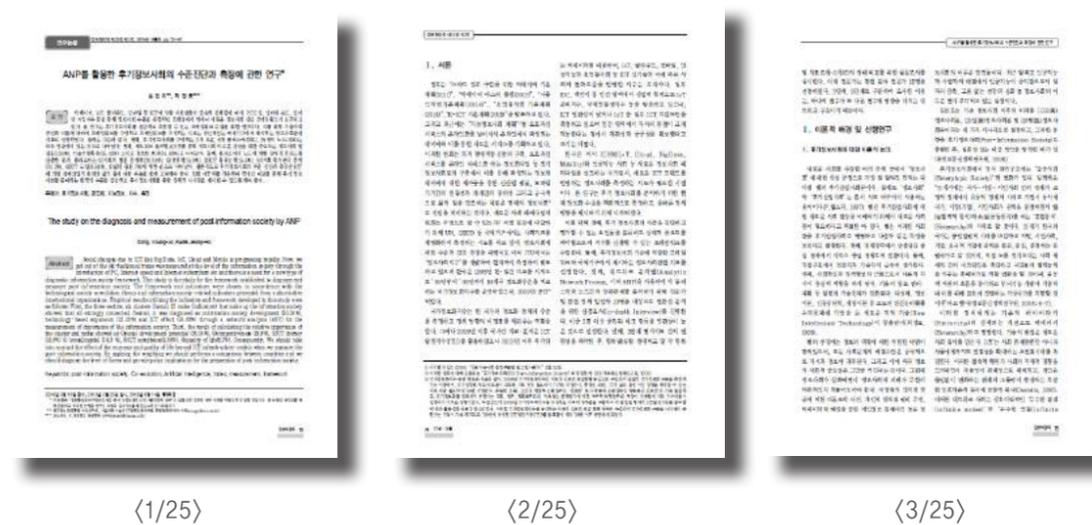
[요약]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모바일 등 ICT에 의한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PC도입, 인터넷 속도, 인터넷 가입자수 등을 통해 정보사회 수준을 측정하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사회 진단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후기정보사회를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기술사회 공진화 이론에 따라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지표는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정보사회관련 지표로 선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정보사회를 구성하는 3개 부문, 6개 클러스터(항목), 25개의 노드(지표)는 모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네트워크 분석법(ANP)를 통해 정보사회의 수준 진단을 위한 중요도는 정보사회 발전(50.34%), 기술기반확충(25.03%) 그리고 정보화 효과(24.63%)로 나타났다. 둘째, 클러스터와 노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클러스터는 ①사회의 발전 잠재력(26.04%), ②경쟁력(15.9%), ③ICT 활용능력(15.5%), ④(사회적)자본의 증대 (24.3%), ⑤ICT 도입(9.54%), ⑥삶의 질(8.7%)에 대한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후기정보사회의 수준 진단과 측정은 ICT에 의한 경제산업적 효과와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가간 비교를 통해 후기 정보 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의 수준을 진단하고 후기정보사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후기정보사회, 공진화, 지능정보, 지수, 측정

<미리보기>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112021054165684&id=17426&Order=020702&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1&objpage=0



ICT 인사이드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 - 2015년 주요성과 및 국내외 사례 -

한국정보화진흥원 유재공 연구원
이경미 연구원

2016년 6월 8일 제29회 정보문화의 달에서는 K-ICT '내가 만드는 마을 (I Create Town, ICT)'을 주제로 하여 사업을 소개하는 7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2015 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를 확산 모델로 하여 지자체 중심의 추진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들입니다. K-ICT '내가 만드는 마을 (I Create Town, ICT)'이 이번 해에 확대 시행될 수 있던 계기에는 작년에 선행된 'ICT를 통한 상상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는 2015년 4월에 지자체,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대학,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정부지원금 2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창의성과 ICT 신기술을 결합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7개의 과제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발대식을 시작으로 과제별로 매칭된 전문가 멘토의 컨설팅을 거쳐 성과를 냈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각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은 IoT 센서로 실내 공기 정보를 수집하고, App을 통해 공개하여 도서관의 환경 개선에 기여한 한국도서관협회가 수상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은 3D 프린팅과 센서를 활용하여 절단장애인을 위한 전자의수를 보급하고, 제작 기법을 공유한 만드로와 인디 뮤지션 발굴하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주)한국데이터하우스 두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ICT 인사이트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p>농사펀드 〈ICT를 활용한 도시농촌 교류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가 농사펀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제공 • 참여 신청 농가의 증가 - '15.5 35명 ⇒ '15.11 96명 • 농사펀드 신규이용자 증가 1,882명('15.5~11) • 사업기간 중 57명 농부가 영농자금(4,601만원)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온팜 ② 푸드 어셈블리 ③ 푸디 ④ 피플스 그로스리 ⑤ 하니비 네트워크
---	---	---

ICT를 활용한 도시농촌 교류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 활성화

주관기관: (주)농사펀드
협력기관: (사)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기능: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
사업비: 30억원

I01 사회문제

- 영농자금 마련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부
- 제한된 유통구조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및 수익도 하락
- 농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 수준이 낮아짐

I02 해결방안

- 온라인을 통한 농사펀드 공개로 신규 투자자 확보
- 소비자도 1인 1농의 1% 지원만으로도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단순 농산물 구매가 아닌, 농사의 온/오프라인 수확까지 함께 참여하는 영농공동체 조성
- 다양한 농촌생활환경을 가늠하여 판매처 및 제품

I03 추진과제

- 도시농사펀드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온라인을 통한 농사펀드 운영의 안정성 확보
- 농사펀드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신규농가 확보

I04 주요성과

-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가 농사펀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제공
- 참여 신청 농가의 증가
- 농사펀드 신규이용자 증가 1,882명('15.5~11)
- 사업기간 중 57명 농부가 영농자금(4,601만원) 마련

도·농간 사회적협약 플랫폼 '농사펀드'

ICT 기술을 접목하여 농촌과 도시를 상호적으로 연결하고 기회를 제공

I03 추진과제

- 도시농사펀드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온라인을 통한 농사펀드 운영의 안정성 확보
- 농사펀드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신규농가 확보

<p>비영리IT지원센터 〈강동구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맵 및 포털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구 기반 사회경제 특화 커뮤니티 맵 제작 • 강동구 주민 참여 기회 및 공간 확대 • 전략적 사업 제휴 및 협약 • 다양한 사회적 효과 창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브먼트 ② 와트타임 ③ 유알바이오티카 ③ 인로우 ⑤ 캐치어파이어 ⑥ 핸드업 ⑦ 테크숍
---	---	--

강동구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맵 및 포털 구축

주관기관: 비영리IT지원센터
협력기관: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익행정개발협동조합 등

주요기능: 커뮤니티맵
사업비: 30억원

I01 사회문제

- [기초 커뮤니티 맵핑]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 공간의 변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이 부재

I02 해결방안

- 커뮤니티맵 제작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커뮤니티맵 제작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I03 추진체계 및 ICT 기술 적용

- [비영리IT 지원센터] :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공익행정개발협동조합] : 기술지원, 개발자 수급

I04 추진과정

- 2015.04: 커뮤니티맵 제작을 위한 주민 참여 유도
- 2015.07-08: 커뮤니티맵 제작을 위한 주민 참여 유도
- 2015.10: 커뮤니티맵 제작을 위한 주민 참여 유도

I05 주요성과

- 누구나 사용 가능한 Tool Kit 형태
- [지역경제와 스토리텔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

※ 성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 국가정보화연구 - 이슈분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로 만들어진 7개의 프로젝트는 현재 이뤄낸 성과 이상의 파급효과를 통해 더 큰 변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K-ICT '내가 만드는 마을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과제를 발견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위 글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604121438125699&id=17326&Order=021400&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1&objpage=0

ICT 인사이드 _전자정부 6대 수출품목 및 비전 소개



• 전자정부 6대 수출품목 및 비전 소개 •

- S.H.I.F.T.s: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세계 행정문화를 바꿔드립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권선희 연구원
김경연 책임

전자정부 6대 수출품목, 국민들에게 선보이다

‘2016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6월 19일 ~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를 주제로 정부3.0 대표 성과들 가운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사례들로 전시되었으며 약 7만 여명의 국민, 주한 외교사절, 외신기자들이 방문하여 정부3.0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자정부는 해외 수출실적이 ‘정부3.0-유능한 정부’의 주요 성과로 선정되어 전자정부 수출 6대 주요시스템을 ‘전자정부수출관’으로 구성, 국민들과 해외공무원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다. 해당 부스에는 우리나라 대표 수출 시스템을 이해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주한공관 관계자, 해외 정부 공무원 등 주요 내외빈 500여명 관람객들의 발길이 몰렸다.



‘전자정부수출관’은 6대 수출시스템의 각 강점을 SHIFTs로 형상화하고, 세계 행정문화를 한국의 전자정부가 변화(SHIFTs)시킨다는 점을 주제로 내세웠다.

“세계 1위 대한민국이 세계 행정문화를 바꿔드립니다. S.H.I.F.T.s”
 (The K-eGov is making revolutionary SHIFTs of global public administration)

- Speedy and Secure(법무부 자동출입국시스템): 15초 출입국! 빠르고 안전한 국경지킴이
- High-Performing(관세청 유니패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통관
- Intelligent(국토부 지능형교통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막힘없는 똑똑한 교통
- Friendly(특허청 특허넷): 누구나 손쉽게 특허출원 OK!
- Transparent(조달청 나라장터): 전 세계가 인정한 투명한 조달행정
- Scientific(국과수 과학수사시스템): No Crime 지향의 데이터 기반 과학수사

ICT 인사이트

전자정부 6대 수출품목 및 비전 소개

1. 세계 행정문화를 변화시키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6대 시스템

2010, 2012, 2014년 UN평가 3회 연속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2015년까지 32개 분야 시스템을 75개국에 23억 2천만 불 규모로 수출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대표 수출품목 6개(SHIFTs)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1. Speedy and Secure, 출입국관리시스템 15초 출입국! 빠르고 안전한 국경지킴이

출입국관리시스템은 사전 승객정보 분석과 자동 출입국심사로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대면심사 없이 모든 출입국절차가 15초면 완료되며,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여 신원 불일치 외국인을 연 평균 1,800여명 적발할 만큼 정확하다. 또한 항공기 도착 전 사전승객의 정보를 분석하여 우범승객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High-Performing,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통관

UNI-PASS는 모든 절차를 세관방문과 서류 없이 자동 처리하는 세계 최초의 100% 전자통관시스템이다. 43만 개의 수출입 기관과 업계를 연계한 원스탑 통관으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자동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신고에서 수리까지 1건당 1.5분에 처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관시스템으로 불리기도 한다. (UN권고 4시간)



3. Intelligent,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언제 어디서나 막힘없고 똑똑한 교통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지능화된 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향상시키며 친환경성을 제고한다. 전국 69개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전국도로와 대중교통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0,340 정류장에서 버스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는 20% 증가하였으며 연료소모와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였다(CO2 12.6만 톤). 또한 교통정보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위해 100여개 기업이 활용하는 등 신산업 창출에도

ICT 인사이트

전자정부 6대 수출품목 및 비전 소개

기여하였다. ITS는 이번 전자정부수출관에서 아프리카 공무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시스템이기도하다.



4. Friendly, 특허넷(KIPONET) 누구나 손쉽게 특허출원 OK!

특허넷(KIPONET)은 신청, 조회, 심사, 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특허 행정시스템이다. 1999년 세계 최초 특허 전자출원 서비스 개시 이래, 일반인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온라인 특허심사로서 종이서류 사용 없이, 연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3억 건에 이르는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방대한 전 세계 기술문서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5. Transparent, 나라장터(KONEPS)전세계가 인정한 투명한 조달행정

나라장터(KONEPS)는 사업발주에서 대금지급까지 조달업무 전 과정을 공개하여 불법전자입찰을 원천 차단, 투명한 조달계약을 보장한다. 국가 조달 업무를 일원화하여 5만여 공공기관과 32만여 조달업체가 현재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으며(총 거래실적 74조 5천억 원), 자동화를 통해 획기적인 비용(연간 8조원)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ICT 인사이트

전자정부 6대 수출품목 및 비전 소개

6. Scientific, 과학수사시스템(NFS) No Crime 지향의 데이터 기반 과학수사

과학수사시스템(NFS)은 과학수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범죄증거물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포렌식, 생체식별 기술로 강력 범죄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연 38만 건 신속 감정으로 지연율 0%를 달성하였다. 신기술의 적용과 입체적 연계를 통해 과학수사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 제고 효과를 가져 오는 등 향후 전자정부 수출의 유망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제사회 공조를 꿈꾸는 전자정부 수출의 비전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실적이 5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2010년에 수출실적 1억 달러 달성 이후 5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2018년에는 전자정부 수출 10억불 조기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한다. 최단기간 수출상품은 2배로 다양화하고, 수출규모는 2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지닌 지식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꿈꾸는 수출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사회의 시민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능을 기여하는데 있다.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발걸음이 기대되는 바이다. 안심상속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 위 글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604121438125699&id=17407&Order=021400&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1&objpage=0



ICT 인사이트 **사례로 본 공공데이터**



• 사례로 본 공공데이터 •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호택 주임연구원

어느덧 정부3.0의 핵심정책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행한지 4년차가 되었다.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 시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월드와이드웹(WWW) 재단에서 실시한 ODB(Open Data Barometer) 8위를 달성하는 등 대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공공데이터가 국내의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공공데이터

먼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네이버의 지도 서비스, 카카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정보 제공 및 예약 서비스, 테마별 데이트 코스정보 제공 서비스, 택배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참고 : 공공데이터 활용사례집,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ICT 인사이트

사례로 본 공공데이터

사진속의 인터뷰 내용에서 보여준 3개 기업의 공통점은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차장 정보, 관광 정보, 택배 정보를 기업 측에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로 인해 별도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담당할 직원 혹은 팀이 필요 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수집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집중 할 수 있어 전체적인 사업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기업 측의 입장이다.

공공데이터 사업 유형으로 본 국내 활용 기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공공데이터 사업 유형 5가지'를 참조하였다.

『ICT를 통한 착한상상프로젝트』 사업 소개

- (1) Supplier :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오픈데이터로서 제3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
- (2) Aggregator : 오픈데이터 및 그 외 가치 있는 데이터를 수집·취합·가치 부가(value-added) 수행 가능.
- (3) Developer : 오픈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웹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 개발, 판매.
- (4) Enricher : 자신들의 서비스,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오픈데이터를 활용.(예: Climate Corp, Zillow, Zoopla 등)
- (5) Enabler : 다른 기업 또는 개인에게 플랫폼, 기술을 제공.

※ 'OPEN DATA FOR ECONOMIC GROWTH'보고서 발표('14. 6. 25)

국내의 공공데이터 활용 유형

유형	기업	비고
Supplier	카카오, 네이버	OPEN API형태로 제공 (예 : 지도 API 등)
Aggregator	에스엔비소프트, 케이웨더 등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하여 API형태로 제공
Developer	굿닥, 직방 등	앱/웹 형태로 정보제공 (국내 대부분의 사례 해당)
Enricher	파리바게트, 홈플러스 등	기상정보를 활용한 날씨 경영 서비스

※ Korea Open Data 500 및 기상정보 활용사례집 참고

기업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한 것은 세계은행에서 미국 뉴욕대 GovLab의 OPENDATA500*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이나 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도 단순 앱·웹 서비스 제공형태를 벗어나 컨설팅 및 데이터 재가공 같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답변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형 OPENDATA500인

ICT 인사이트

사례로 본 공공데이터

Korea Open Data 500*를 운영하여 다양한 기업에 대한 발굴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OPENDATA500 : 미국 뉴욕대의 GovLab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사이트(www.opendata500.com)

현재 기업의 자체적인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기상정보를 활용한 날씨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많다.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의 경우 '기상정보'와 '일별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에 따른 판매량을 예측 후 주문량을 조절하여 Chance Loss(판매할 제품이 없어 발생하는 손실)를 방지하고 재고 부담을 줄여 회사의 매출 증대시켜 현재 가맹점의 90%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또 단순히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에서 그치지 않고 이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2차적인 제공자입장으로 데이터판매를 하는 기업도 있다. 에스앤비소프트는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중국어 간체정보(서울시) 등을 제공받아 자체 수집한 정보와 결합해 중국어지도API로 재생산(데이터가공)하고, API형태로 판매도 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산업 형성을 위한 제언

공공데이터는 국내 기업들에게 데이터 수집 및 재가공의 시간·비용·노력을 줄여주고, 기업들에게 활용되어 이윤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공공데이터 사업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ICT 인사이트

사례로 본 공공데이터

위의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유형 중 국내의 서비스는 대부분 Developer(Korea Open Data 500 가입기업 대상 조사)에 해당된다. 이는 해외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시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성공 사례가 등장하였고, 이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규시장에 대한 막연한 도전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이제 교과서에나 나올만한 말이다.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최소한의 사례가 있거나 또는 실질적 이윤을 가져다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기업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Google)에서는 직접적인 자문과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의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원활한 데이터

개방과 기업들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의 공간과 환경(오픈스퀘어-D, 창업토크 등)을 만들어 주는데 집중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의 분류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산업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위 글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604121438125699&id=17495&Order=021400&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1&objpage=0



ICT 인사이트 _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3탄



•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3탄 • - 정보화통계집 -

한국정보화진흥원 황현주 연구원

분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분야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글로 작성된 문서를 살펴보기도 하고 사진, 지도, 영상 등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들 중 빠지지 않고 활용되는 것은 통계 데이터가 아닐까 합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미지화한 그래프와 도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수치 값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현황과 증감추이, 비율 등의 내용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화 트렌드 리더> 꿀팁 3탄으로 소개해 드릴 보고서는 정보화 통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화통계집'입니다.

정보화통계집은 정보화통계조사 결과를 수록한 발간물로서 '정보화통계조사'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정보화 통계 조사에서부터 통계집 발간까지의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화 트렌드 리더> 꿀팁 2탄 '국가정보화 백서'에서 국내 정보통신분야의 족적(足跡)을 살펴보았다면 '정보화통계집'에서는 국내 사업체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현황을 지표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3탄 '정보화통계집'



'정보화통계집'은 1999년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인 '정보화통계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통계조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통계 결과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ICT 인사이트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3탄

‘정보화통계조사’는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과 신규 정보화 정책 수요를 반영해 우리나라 사업체의 정보화 이용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국내 사업체¹⁾의 정보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통계조사 결과는 정보화통계집 발간 뿐 아니라 국가정보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간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정보화 부문 공식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화통계집은 국내 사업체의 주요 정보화 현황을 모아놓은 ‘한눈에 보는 사업체의 주요 정보화 현황’을 시작으로 ‘분석편’, ‘통계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정보화통계집부터는 정보화통계조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체의 정보화 추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한눈에 보는 사업체 정보화 10년’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1) 정보화통계집에서 사용된 ‘사업체’라는 용어는 종사자수 1명 이상의 민간사업체와 공공사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

2015년 정보화통계집에서는 정보화 조사 지표를 크게 ‘정보화 기반 및 이용’, ‘정보이용’, ‘정보화 투자 및 업무혁신’, ‘ICBM 서비스’, ‘정보보호 및 보안’5개 분야로 구성하여 분야별 세부지표에 대한 통계내용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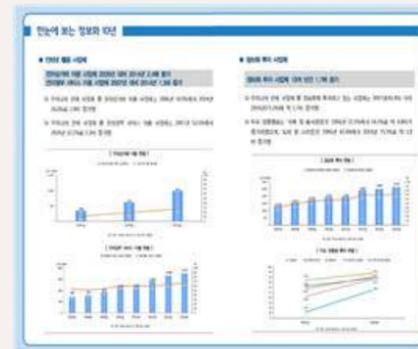


그림1 한눈에 보는 정보화 10년 (2015 정보화통계집)



그림2 분석편 (2015 정보화통계집)



그림3 통계편 (2015 정보화통계집)



그림4 부록 (2015 정보화통계집)

ICT 인사이트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3탄

‘정보화통계집’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을 담당자(한국정보화진흥원 한웅기 주임)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정보화통계집은 언제 첫 발간되었으며, 발간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화통계집은 정보화통계조사의 결과를 담은 발간물로서 정보화통계조사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통계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9년부터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통계조사는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과 신규 정보화정책 수요를 반영해 우리나라 사업체의 정보화 이용 현황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4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정보화통계집은 주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정보화통계집은 일반인의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사 개요와 표본 설계, 품질 관리 및 모수추정 방법 등 통계 조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분석편’과 ‘통계편’으로 구분하여 조사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편’에서는 각 조사 지표별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편’에서는 각 조사 지표별로 지역, 종사자 규모,

업종, 조직형태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록’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정보화통계조사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거나 모집단을 정의 하는 등 통계조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정보화통계집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간되나요?

정보화통계집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통계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보화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14,000여개의 표본을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표본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검증을 실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통계결과를 공표하고 정보화통계집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4 정보화통계집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보화통계집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 통계조사로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져 다년간의 자료가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체 정보화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높습니다.

ICT 인사이트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3탄

5

2016 정보화통계집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추가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개선되는 정보화통계집에는 첫째, 외국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OECD,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별 통계자료를 오래전부터 수집해왔으며, 우리나라도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조사항목을 정보화통계조사에 반영하여 그 결과 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각국의 개별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여 국가 간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을 더욱 더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화통계조사 결과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업체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업무적,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체가 정보화를 도입한 수준과 이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다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6

정보화통계집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ICT 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정보화통계집에서도 신규 ICT 구축 및 현황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화통계조사에서 변화하는 ICT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구성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통계집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보화 분야의 대표성을 지니며 신뢰받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참 고]

참고 1 :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1탄 - NEAR & FUTURE -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604121438125699&id=16905&Order=021400&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5&objpage=0

참고 2 : 정보화 트렌드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꿀팁 2탄 - 국가정보화백서 -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604121438125699&id=17209&Order=021400&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3&objpage=0

※ 위 글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604121438125699&id=17518&Order=021400&search_target=&keyword=&Flag=020000&nowpage=1&objpage=0



포토 앨범 _2016년 매어마을 일손돕기 봉사활동



포토 앨범 _2016년 매여마을 일손돕기 봉사활동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 2016년 NIA-ITU 협력 ICT 봉사단 부트캠프 개최 (태국)	5 ▶ 'U-마루 인문학 강연 '클래식 아는만큼 보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 '16년도 신입직원 사회공헌 활동(2차) (안심 신생원)	6 ▶ '16년 공공부문 EA 활성화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NIA 서울사무소)	7	8 ▶ '한국정보화진흥원-병무청 업무협약 (사회복무연수센터)	9
10	11	12	13 ▶ ICT 희망드림(Dream) 토크 콘서트 개최 (울산)	14	15 ▶ ICT 희망드림(Dream) 토크 콘서트 개최 (경남 창원시) ▶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전문과정 수료식 (NIA 서울사무소)	16
17	18 ▶ [7.18~28] 인도네시아 공무원 전자정부 역량강화 연수 ▶ [7.18~27] 제33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부문 전국 본선대회 접수	19	20	21	22	23
24	25 ▶ [7.25~26] 한국인터넷드림단 어린이 하계캠프	26	27 ▶ [7.27~29]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2016 강원(녹색도시 체험센터) ▶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설명회 및 개통식 (정부서울청사)	28	29	30
31						

디지털통 다시보기

* NIA 뉴스레터 디지털 통(通)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

11월
NOV

12월
DEC

2014

1월
JAN

2월
FEB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8월
AUG

9월
SEP

10월
OCT

11월
NOV

12월
DEC

2015

1월
JAN

2월
FEB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특집호
2015년
대구·제주지방이전
특집호

10월
OCT

11월
NOV

2016

1월
JAN

2·3월 통합본
FEB
&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